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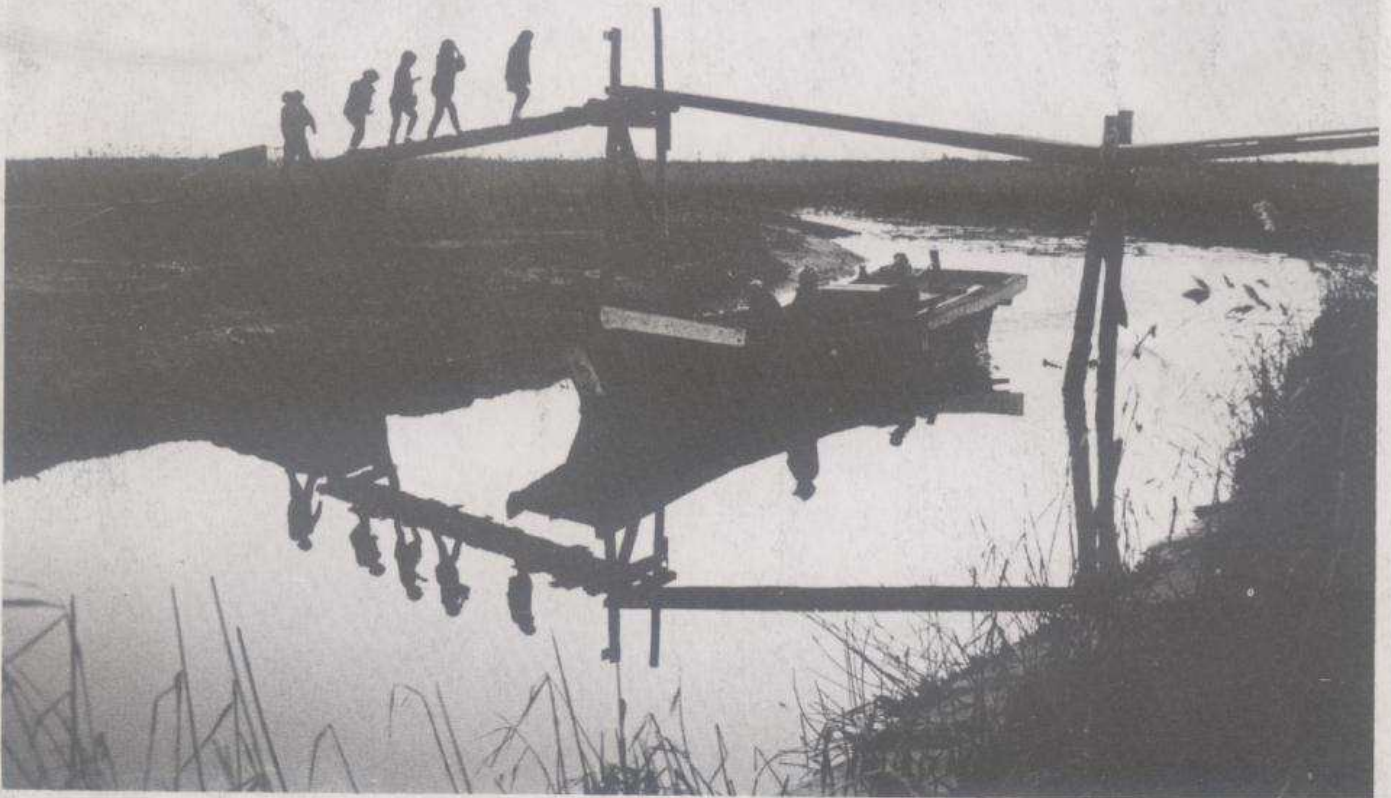


노인! 세되어 나간다

제 5 회 부산연극제 참가작  극단 **연극극장** 제23회 정기공연



1987. 3. 24-26

시민회관 소극장

- 주최 / 부산직할시
- 주관 /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
- 후원 / 한국문예진흥원 · 부산시교육위원회
부산일보사 · 부산문화방송 · KBS부산방송본부



극단 대표
이 영 식

범사에 감사하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그것을 지배할 인간을 만들어 자연과 함께 벗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
(창세기 1장)

원래 이번 연극제에는 참가할 계획이 없었고 다른 작업을 준비하던 중 부득이 참가해야 할 입장이 되어 내키지 않는 일에 다시 손을 대게 되었다. 타고난 성품답으로 뭔가 확실한 걸 좋아하는 탓으로 개운치 못했던 「울속도」를 다시 하기로 하고 전체 모양새를 작가의 의도대로 말긴 끝에 「노인」이 탄생케 된 것이다. 뜻밖에 전체 출연진들의 열의가 대단했고, 그 덕에 작년에 가보지 못했던 통한의 「울속도」를 몇번씩이나 다녀오기도 했으며, 특히 잊혀지지 않는 일은 울속도 낚은 다리였 「포장마차」 주인내외분의 눈물어린 30여년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염분에 섞여 쓸모없는 갈대밭을 한 삼, 두 삼씩 파내어 높은 곳에 옮겨 독을 만들어, 몇년 걸려 염분을 빼낸 뒤 옥토로 바꾸기 까지 수없는 홍수와 온갖 재난 속에서, 강바닥의 재첩을 굶어 보리로 바꾸어 그걸 갈아서 죽으로 연명하며 손톱이 일그러지도록 일하여 만든 끝병밭의 내력 등…….

아무튼 인간은 태초에 조물주가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철새들의 낙원이었던 「울속도」에서 자의건 타의건 떠나야 했던 그들도 조물주의 뜻대로 번성하여 충만하기만을 기원한다. 이번 공연에 성원과 격려에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과 어려운 작업에 기꺼히 동반하신 연기자, 스태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은총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 공연을 축하합니다.



고한진이비인후과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1동 139-3
TEL. 805-3050

의학박사
전문 의 고 한 진





작품을 만들기 까지

신 태 범

이 작품은 극단 예술극장이 지난 '86년 제 4회 부산시 연극제에 출품한 작품 <울속도>를 뼈대로 삼고 있다. 그런데 <울속도>는 당시의 연극제 프로그램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연출자 이영식씨가 기둥줄거리를 구상하고 초안하였으며, 작가 박 원돈씨가 마지막 손질과 마무리를 맡아 정리했던 작품이었다. 그리고 연습 과정에서 희극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내가 받아서 다시 전후반부를 대폭 고치고 첨삭하여 공연하였다. 결과적으로 나까지 합쳐 세 사람의 공동작품이 된 셈이었다.

연극제가 끝난 후 <울속도>는, 우리 연극사상 아마도 처음일 것으로 생각되는 낙선 기념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울속도>를 주의 깊게 보신 많은 분들이, <향토연극의 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작품>으로 격려를 보내 주셨다.

그때의 <울속도>를 '87년 제 5회 부산연극제에 다시 내놓겠다고 개작을 요청해 왔을 때, 조금 난감한 기분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시간 나는대로 <울속도>를 총체극 형식으로 전폭 다시 써 봤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쫓기면서 다시 개작하기에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울속도>에 대해 나대로 가지고 있던 아쉬움과 애정 때문이었다. 결국 한 구석의 불만을 누르면서, 작품을 다시 쓰는 기분으로 전면적인 개작에 착수하였다. 제목도 아주 바꾸기로 하였다.

이상이 <노인, 새 되어 날다>가 탄생한 내력의 전부이다.

그러나 역시 그 기둥줄거리는 <울속도>에 기대고 있고, 내용도 상당 부분 <울속도>에서 빌어쓰고 있어, 이 작품은 결국 나를 비롯한 이 영식, 박 원돈 세 사람의 공동창작품이라고 함이 옳다. 그러면서도 여러가지 편의상 내 개인의 이름으로 발표하기로 세 사람이 합의하였음을 나는 그저 고맙게 생각할 따름이다. 이것으로 내가 지게되는 빛은 또 다른 극형식으로 새 작품을 창출하는 것으로 값을 생각이다.



연출의 말

김 경 화

노인, 새 되어 날다는 희망의 연극이다. 역설로 들릴 지도 모르지만 작품의 외형적인 구조로 보면 울속도의 자연파괴 현상, 혹은 하구언 공사로 인해 밀려 나야 하는 정착민들의 애환, 비련 등으로 해서 비극적 연극으로 해석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외재울 속에 잠재한 끈끈한 생명력, 혹은 갈대 뿌리와의 비교되는 강인한 생활력 등의 밑받침으로 인해서 역동적이며 희망적인 미래를 가진 인물들의 밝은 얘기 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파괴로 인해 비록 소외감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복원 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분명 희망적인 것이다.

울속도의 주민들을 소재로 한 이 연극이 결코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술한 사람들의 고뇌가 담기고 그들의 어두운 생활 얘기로 점철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들 등장인물들의 내면에 깔린 희망의 에너지는 분명히 분수처럼 뿜어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분명 자연속에서 함께 호흡해야 한다. 수많은 철학자들의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 한편의 연극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은 상호공존해야 한다는 명쾌 하고도 깊은 철학을 터득하고 싶다.

수고한 모든 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울속도에서 -



권노인 • 이 영 식



안노인 • 유 순



구포덕 • 정 행 심



소 장 • 박 희 철

CAST

《작품해설》

권노인은 율속도에서 40년을 살아 온 토박이다. 그는 절마라 찾아오는 철새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고, 갈대밭, 억센 뿌리와 싸우며 농사짓고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안노인과 구포덕과 같은 훌륭한 인정을 지닌 친구들이 있다. 그는 자연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느날 하구연 공사가 시작되고 정착민들은 적당함(?) 보상금을 받고 등박이 휘도록 피땀흘려 개간한 정든 땅을 떠나야만 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칠세도래지 낙동강 하구, 율속도. 조금 있으면 인간의 힘으로 새롭게 정리되고 개간되어 옛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과연 학자들의 엇갈린 주장대로 될런지?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이 맞닥뜨려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 작품은 한 인간의 땅과 자연에 대한 굳센 보호의지를 통해 현대인들이 지향해야 할 바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 장 • 김 익 현



봉 섭 • 권 철



아 내 • 김 지 영



옥 이 • 김 경 림



김해덕 • 이 혜 영



경 아 • 하 미 경

STAFF



기획 • 신용우



조 명 • 김인환



무대감독 • 배성오



음향제작 • 정철



효과 • 장혜선



슬라이드 • 김경수

장 치 • 송길섭



太陽物産株式會社

釜山事務所



安 豊

- 태양물산(주) 부산사무소 과장대리
- ☎ 94 - 3345
- 부산청년회의소 회원

釜山大學校齒科大學

- 口腔外科學教室 -

助 教 授 金 兌 奎
齒 醫 學 博 士

釜山市 西區峨峨洞 1街10番地
電 話 : 26 - 0171 ~ 9
研究室 : (交) 568